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의 단계적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의미 분석

신 미 라·이 지 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동시대적 가치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의 단계적 표현 양식과 함축적인 의미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해체주의에 대한 문헌 연구와 해체주의 디자이너와 브랜드 사례 수집을 바탕으로 해체주의 디자인 유형을 ‘차연’, ‘탈경계’, ‘업사이클’로 분류하였다. 또한 단계별 대표 디자이너와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 베트멍, 메종 마르지엘라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동위성 분석과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 프레임을 사용하여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징과 내포된 기의를 분석하였다. 기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된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의 단계적 변화와 의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말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통해 살펴본 초기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양식인 차연은 단편적인 것에 대한 부정으로 이질적으로 서로 다른 패션 스타일의 차이 속에서 대상의 인식을 확장하며 포스트모더니즘 기반의 다양성을 표출하였다. 둘째, 신해체주의의 특징인 탈경계는 SNS와 같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소수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관용이 증가함에 따라, 패션디자인 표현은 확장적이고 가변적인 특징을 가졌으며, 패션 전파와 수용 대상 간의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를 제안했다. 셋째, 환경 보호 인식의 확장과 함께 발달한 업사이클 해체주의는 한정적 재료 사용의 희소성과 재료가 가진 역사성을 특징으로 현재의 디자인 감성과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복합적인 패션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해체주의의 핵심 개념의 흐름을 세분화하고, 당대의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패션디자인의 특징과 내재한 시대적 가치와 문화의 의미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 및 제시함에 따라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기반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 해체주의, 차연, 업사이클,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이항대립

*교신저자: 이지현, ez2@yonsei.ac.kr

접수일: 2020년 10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8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사회적 전통에 대해 비판하고 집단으로 이성을 발휘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한다. 1960년대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사회는 그 전통에 대한 비판에 의해 변화해왔다’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현전(現前)하는 것의 의미에 문제를 제기하는 ‘해체주의’를 태동시켰다. 해체주의 철학은 60년대 등장 이후 문화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패션에서는 80,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이념 안에서 사회의 폐쇄성과 획일성, 몰개성에 대한 회의감이 논의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Buckingham, 2011).

해체주의 역시 60년대 이후 지속해서 동시대의 사회 문화 현상의 영향에 따라 진화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해체주의 사상은 단편적 사상에 대한 반향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 이슈와 함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용어가 대두되며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패션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향이 모색되었다(Bae & Jung, 2018). 이러한 영향 아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해체주의 패션은 동시대를 거울삼아 경제, 정치, 환경, 미학 등을 표현해왔다(Gill, 1998).

지금까지 해체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는 해체주의에 대한 디자인 기법과 특성에 관한 연구(Kim,

2019; Kim & Kim, 2017; Shon & Yi, 2004), 해체주의 양식과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Kim & Chun, 1997; Kim & Ha, 2016) 등이 있지만, 기호학적 관점을 통해 추상적인 해체주의 개념 변화와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기호학 관점의 연구는 현대 패션의 주요 흐름 중 하나인, 해체주의 디자인에 반영된 변화하는 시대 가치의 복합적 의미를 파악하며, 사회문화적 상징 언어로서 패션이 가지는 심층적 의미 해석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0년대 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점차 변화하고 있는 현대 해체주의 흐름을 정리하고, 단계별로 나타나는 내재적 의미를 기호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문화적 기호로 작용하는 패션의 특징을 드러내고, 해체주의 패션을 통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대 해체주의 패션의 흐름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해체주의 패션 관련 문헌 연구 및 대표적 패션 컬렉션 제공 사이트 보그(www.vogue.com)의 컬렉션 자료 리뷰, 디자이너의 홈페이지(viviennewestwood.com, vetementswebsite.com, maisonmargiela.com), 대표적 포털 사이트 구글(www.google.com)과 네이버(www.naver.com)를 기반으로 시기별 디자이너의 대표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선행연구와 사례를 기반으로 시기별 해체주의의 핵심 의미

STEP 1 선행 연구 및 사례 수집		STEP 2 디자인 유형 및 의미 분석		STEP 3 기호학적 해석	STEP 4 해체주의 의미변화 분석
(1) 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	(2) 패션 컬렉션, 디자이너 홈페이지 사례 수집	(3) 해체주의 유형 분석 (자연, 탈경계, 역사성)	(4) 선정 디자이너 컬렉션 분석 (비비안 웨스트우드, 베트멍, 마틴 마르지엘라)	(5)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기반 패션 디자인의 기표와 기의 분석	(6) 해체주의의 시대별 흐름과 의미변화를 정리

Figure 1. 연구의 진행 단계.

변화 단계와 그 특징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 유형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시기별 해체주의의 유형을 해체주의, 신해체주의, 업사이클링 해체주의로 분류하였으며, 단계별 디자인 방법적 특징의 키워드는 차연, 탈경계, 업사이클(up-cycle)로 정리하였다. 해체주의의 단계별 대표 디자이너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초기 해체주의는 대표 디자이너는 선행연구(Eun & Kim, 2002; Jiang & Seo, 2014; Kim, 2005; Kim & Chun, 1997; Yun, 2009)를 기반으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로 선정하였으며, 신해체주의는 선행연구(Cho & Kim, 2019; Kim, 2016; Phelps, 2015; Mower, 2016)를 통해 베트멍(Vetements)을 선정하였으며, 업사이클링 해체주의는 선행연구(Gill, 1998; Oh et al., 2016)를 기반으로 메종 마르시엘라(Maison Margiela)를 선정하였다. 셋째, 해체주의 단계별 대표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징을 정리하고, 조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항대립적 동위성(isotopie) 분석과 그레마스 기호사각형(Greimas semiotic square) 프레임으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해체주의 단계별 키워드와 대표적 디자이너 작품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 그레마스 의미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해체주의의 시대별 흐름과 의미 변화를 정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해체주의와 해체주의 패션

1) 해체주의와 차연의 개념

20세기 후반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통신수단과 미디어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객관적인 단일 사상의 관점과 구성체계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시작되었다(Buckingham, 2011).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전하는 것에 대한

반향과 문제의식을 불러오며 해체주의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획일성을 부정하며 세상을 이루는 텍스트 혹은 사상의 간극, 여백, 모순을 표현하는 해체주의의 핵심 개념인 ‘차연(差延: differance)’이 등장하였다. 차연은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차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différance’와 ‘지연’을 의미하는 ‘différer’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Buckingham, 2011). 차연에는 공간성과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다르다’, ‘홀쏘린다’와 시간에 있어 차이(지연)를 가리키는 ‘연기하다(put off)’라는 3가지 의미가 있다. 즉,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적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차이가 지연되고 유보되는 현상을 말한다(Kim & Lim, 1998). 차연은 초기 해체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며, 차연이 적용된 해체적 디자인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양식이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디자인에서 절충주의 양식, 탈형식과 콜라주의 활용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과편화된 이미지의 재구성을 통한 변형과 조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Choi, 2015). 즉, 차연을 통한 해체적 디자인은 과거의 이미지를 재조명하며, 과거와 현재의 이중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해체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데리다의 차연을 중심으로, 초기 해체주의 패션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차연의 미학과 비비안 웨스트우드

해체주의는 20세기 말 21세기의 시작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배경으로 이성 중심의 서구 사상에 대한 비판적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와 함께 발전되었다. 초기 해체주의 패션의 주요 디자이너로는 서구 의복의 관념을 거부한 켄 코메 가르송(Comme des Garçons), 전통적 가치관의 재해석을 보여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장 폴 고티에

(Jean Paul Gaultier) 등이 있다(Kim & Kim, 2017). 이들 외에 차연의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로는 과거의 문화와 역사를 현대 패션에 결합하는 실험을 지속한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있다(Kim & Chun, 1997).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영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상반된 양극을 결합하여 그녀만의 독창적인 조합을 만들어 내었다. <Figure 2>와 같이 영국적 모티브인 아가일, 체크 등 남성 의복에 주로 사용하였던 전통적인 패턴을 여성 컬렉션에서 재해석하여 그녀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녀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여성의 권위와 자유를 남성 복식과 함께 매치하여 더욱더 강하게 표현하였다. 유럽의 고전적인 귀족주의적 취향에 현대의 하위문화 요소를 결합하는 등의 이질적인 요소를 함께 믹스 앤 매치(mix and match)하는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였다(Yun, 2009).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과거 복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연의 전통적인 의복 구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요소를 함께 배치하였다. 또한, 신체를 역동적으로 아우르는 독특한 그녀만의 입체 드레이핑 패턴에 과거와 현대의 역사적인 기록을 표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였다. <Figure 3>은 1981년도에 ‘약탈의 역사와 제3세계(Plundering history and

the Third World)’라는 주제로 선보인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첫 캣워크(catwalk) 쇼이다. 해적의 전통적 바지와 현대의 히피 힙스터(hippy hipsters)의 록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록이 하나의 착장에서 대조를 이루도록 하였다(viviennewestwood.com, n.d.).

<Figure 4>는 16세기 남성복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로코코 시대 귀족 여성들의 장식적인 헤어스타일을 한 모델에게 귀족 남성들의 테일러드 재킷에서 차용한 디자인을 매칭시켰다. 허리를 잘록하게 표현하고, 힙 부분에 러플 장식을 더한 재킷을 매칭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과장된 여성의 실루엣을 표현하였으며, 이렇게 모순된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한 가지 록에 표현함과 동시에 통굽 하이힐을 신고 아기를 안고 있는 현대의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귀족 남성의 의복에서 영감을 받은 재킷 디자인과는 상반되는 산업혁명 당시 노동 하층민의 옷에 사용하였던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데님이라는 소재를 거칠고 해지게 처리하여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귀족 남성의 복식에 현대적인 여성상과 소재를 사용하여, 이질적인 디자인 요소 간의 상충에서 오는 해체주의 ‘차연’의 미학을 표현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Eun & Kim, 2002; Jiang



Figure 2. Vivienne Westwood 1993.
From ANGLOMANIA 1993-1999. (n.d.).
<https://blog.viviennewestwood.com>



Figure 3. Vivienne Westwood 1981.
From THE EARLY YEARS 1981-1987. (n.d.).
<https://blog.viviennewestwood.com>



Figure 4. Vivienne Westwood 1988.
From THE PAGAN YEARS, 1988-1992. (n.d.).
<https://blog.viviennewestwood.com>

& Seo, 2014; Kim, 2005)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 남성과 여성, 귀족 문화와 하위문화 등 이질적 요소가 공존하는 차연의 미학을 표현한 초기 해체주의 대표 디자이너인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중심으로 디자인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신해체주의와 신해체주의 패션

1) 신해체주의와 탈경계의 개념

정보 기술과 미디어 발달의 주 소비대상인 밀레니엄과 Z세대는 온·오프라인(on·off-line)을 넘나들며 다양한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수용한다. 21세기 후반, 이들을 중심으로 소수가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소수의 의견과 개성이 시장을 재편하기 시작하였다(Kim, 2019; Kim & Ha, 2016; Kim & Kim, 2017). 이전의 해체주의와는 다르게 나타난 신해체주의는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발전한 개인 표현의 다양화와 함께 진화하였다. 이러한 해체주의는 일부 하이패션(high fashion)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초기 해체주의와 다르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보다 긍정적이고 유희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 나타났다(Kim, 2019; Lee, 2019). 즉, 신해체주의 패션은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남성과 여성의 젠더, 패션 착장의 TPO(time, place, occasion) 등 명확한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현대에 이르면서 이전의 하이패션의 전유물에서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며 각 패션 이미지의 탈경계 현상이 나타났다.

탈경계(脫境界, De-boundary)란, 경계가 허물어짐, 또는 경계를 벗어남을 의미한다. ‘De-boundary’는 경계선을 나타내는 ‘Boundary’에 ‘탈(脫)하다’라는 접두사 ‘De’를 합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요소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Choo & Seo, 2005). 경계의 모호함은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intertextuality)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대 신해체

주의에서 서로 다른 텍스트, 영역, 성, 지위, 나이, TPO 등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다양하게 해석되는 탈 중심의 해체원리를 표현하는 대표적 특성이 다(Choo & Seo,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해체주의의 특징인 탈경계를 중심으로, 신해체주의 패션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탈경계와 베트멍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해체주의의 대표 브랜드로는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Marques'Almeida), 자크뫼스(Jacquemus) 등이 있다(Kim & Ha, 2016). 이 중 베트멍은 동시대적 감각으로 신해체주의 미학을 제시한 디자인 브랜드로(Kim, 2016), 해체주의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들(Kim, 2016; Kim & Ha, 2016; Kim & Kim, 2017)에서 신해체주의의 탈경계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 디자이너 브랜드로 다루어지며 평가되고 있다.

베트멍은 2014년 첫 컬렉션 발표 이후 2015년 파리 컬렉션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난해한 하이패션보다는 실제적인 의복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으며, 트렌드를 거부하고 전형적인 의복 창작에 대한 형식의 파괴, 젠더의 모호함 등 기본의 패션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즉, 현대 패션의 해체주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탈경계적 해체미학을 보여주고 있다(Kim, 2016).

<Figure 5>는 베트멍의 2015 F/W 컬렉션으로 파리의 게이클럽에서 남녀 컬렉션을 분리하지 않고 선보였다. 또한, 패션쇼의 모델 또한 성 정체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모델을 선별하였으며, 컬렉션 쇼 장소를 파리의 눅눅하고 어두운 지하 게이 클럽에서 진행하여 일반적인 하이패션에서 지향하는 화려하고 멋진 공간이 아닌 이색적인 하위문화의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즉, 기존의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패션 질서에 대한 안티 패션적인 면모를



Figure 5. Vetements 2015.
From Phelps. (2015).
<https://www.vogue.com>



Figure 6. Vetements 2016.
From Mower. (2015).
<https://www.vogue.com>



Figure 7. Vetements 2018.
From Mower. (2017).
<https://www.vogue.com>

드러냈다. <Figure 5>는 남성적이고 스포티한 모터 사이클 블루종(blouzon)을 해체한 디자인에 중성적인 일반인 모델이 스커트와 함께 허리를 강조한 벨트를 착용하여 젠더의 경계를 탈피한 디자인과 스타일링을 선보였다(Phelps, 2015). <Figure 6>은 베트멍의 2016 S/S 컬렉션으로 익숙한 종합물류 기업 DHL의 로고가 프린트된 일상적인 유니폼을 하이패션의 영역에 끌어들이함으로써 일상복과 하이패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실험을 선보였다(Mower, 2015). 이러한 일상적인 모티브의 해석은 이후에도 베트멍의 컬렉션에서 지속해서 나타난다.

베트멍은 2015년부터 일반인을 모델로 기용하였다. <Figure 7>은 2018년 S/S 컬렉션으로 식료품점, 은행, 다리 위, 공원 등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 57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즉흥적으로 모델을 선택하였다. 이들이 허리에 양손을 두고 등을 굽히는 하이패션 모델들이 주로 취하는 포즈를 하여 권위적이고 전형적인 하이패션을 풍자하였다. 또한, 여행 온 가족, 경비 직원, 노인, 어린 소년, 소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젊고 멋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하이패션의 수용 대상을 확장하였다. 이는 ‘옷이란 실제로 그들이 입

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베트멍 디자이너의 말처럼 옷이 가진 본질을 도시인들의 일상 경험과 공간을 런웨이로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Cho & Kim, 2019). 즉 일상과 런웨이, 패션 수용자의 범위 등의 경계를 탈피함으로써 패션의 경계와 수용 대상자의 확장을 제안하며, 나아가 패션 시스템 안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수평적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베트멍이 첫 쇼를 선보인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2015년 파리컬렉션 이후 2016년에서 2018년의 컬렉션 중 탈경제적 패션디자인 이미지를 보그닷컴(vogue.com/fashion-shows)에서 소개한 베트멍의 컬렉션 대표 사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업사이클 해체주의와 패션

1) 업사이클 해체주의와 역사성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이슈가 확산하고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최근 패션 산업에서 관련 분야의 디자인과 서비스 개발 연구가 다양한 유형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해체주의 양식에도 영향을 주어 해체주의 철학 기반의 업사이클 해체주의 디자인이 선보이고 있다. 업사이클 해체주의는 해체주의 양식과 철학 기반의 업사이클 디자인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으로, 재활용한 순환적 재료를 사용하여 해체주의 양식을 표현한 패션디자인을 주로 지칭한다.

‘업사이클’은 친환경 디자인의 배경 아래 1994년 월간지 『살보(Salvo)』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더 높은 수준 위’라는 의미의 업(up)과 ‘순환’을 의미하는 사이클링(cycling)의 합성어로 자원의 순환을 위해 재활용 대상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디자인을 말한다(Oh et al., 2016). 친환경,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개념 아래 등장한 업사이클 디자인은 생산하고 폐기되는 패션 트렌드의 전형적인 굴레에 반하는 해체주의의 반항적 철학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재료를 현대와의 연속선상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업사이클 해체주의의 주요 특징은 역사성(geschichtlichkeit, historicity, 歴史性)이다(Park et al, 2017; Youn, 2016). 역사성의 철학적 의미는 과거 경험과 현재의 대화적 구조를 말하며(Youn, 2016), 단순한 과거의 축적이 아니라 과거 속의 존재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회복하여 현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성’에 대한 패션의 해석으로는 해체와 낚음의 시각적 흔적을 말하며 업사이클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기존의 재료 혹은 제품에서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서 공유하며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말한다(Park et al, 2017). 이러한 업사이클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은 현대 패션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2) 역사성과 메종 마르지엘라

패션에서는 2020년 F/W 컬렉션 이후 다양한 업사이클 해체주의 컬렉션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존의 빈티지 제품을 해체하고 재

조합한 업사이클 라인 ‘레시클라(Recicla)’를 론칭한 메종 마르지엘라의 파리 컬렉션, 컬렉션의 50%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마린 셀르(Marine Serre), 오래된 재고 소재를 패치워크 하여 컬렉션을 선보인 밀라노의 마르니(Marni), 버려진 옷으로 업사이클 컬렉션을 제안한 영국의 알루왈리아 스튜디오(Ahluwaliastudio) 컬렉션 등이 있었다. 이렇듯 최근의 업사이클 해체주의는 스타일과 오브제에서 확장되어 전체적 컬렉션의 콘셉트와 브랜드의 철학으로 표현되며 확대되고 있다.

이 중 메종 마르지엘라는, 1988년 브랜드를 론칭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적 성공을 이루었으며(Kim, 2016), 지난 30년 동안 지속해서 업사이클 해체주의 디자인에 대한 실험과 컬렉션을 선보였으며, 현재도 대표적 업사이클 해체주의 디자인 브랜드로 평가된다.

1991년 『엘르(ELLE)』는 ‘리사이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제작(Recycling: An All-New Fabrication of Style)’에서 리사이클 기반의 해체주의 개념을 소개하며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디자인을 예로 들며, 리사이클 패션(recycled style), 안티 패션(anti fashion), 하이패션에서 선보인 그런지(grunge) 등으로 마르지엘라의 해체 패션(dismantling fashion)을 설명하였다(Gill, 1998). 마르지엘라는 업사이클 디자인에 야구 글러브, 삼페인 뚜껑 등 패션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의외의 대상을 사용하여 감상자에게 낯설고 불안정한 느낌을 전달한다(Figure 8). 이 밖에도 손에 착용하는 장갑을 베스트로 변형한 작품 <Figure 9>와 같이 본래 의복에서 지정된 위치와 기능을 지니고 있던 장갑의 기능과 위치가 전이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패션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재료 혹은 지정된 위치와 기능을 가진 재료들이 가지는 이야기와 이전에 그 물건을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이 전이되어 관찰자에게 생경하고 낯선 미학적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Oh et al.(2016)의 업사



Figure 8. Martin Margiela 2012.
From Fall 2012 COUTURE
Maison Margiela. (n.d.).
<https://www.vogue.com>



Figure 9. Martin Margiela 2006.
From "Martin Margiela".
(n.d.).
<https://agnautacouture.com>



Figure 10. Martin Margiela 2009.
From "Maison Martin Margiela". (2009).
<https://sickathaverage.typepad.com>



Figure 11. Martin Margiela 2020.
From Mower. (2020).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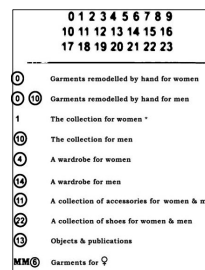


Figure 12. Martin Margiela label system.
From "Martin Margiela".
(n.d.).
<https://agnautacouture.com>

이클 디자인 표현 방법과 기업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낯선 미학은 업사이클 패션디자인의 표현 방법의 하나로 당연시하였던 일상적인 사물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낯선 관계에 두는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이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관찰자에게 예상치 못한 파격적이고 새로운 해체주의 미학을 전달하게 된다.

<Figure 10>은 재고 원단과 부자재를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재사용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11>은 2014년부터 메종 마르지엘라의 수석 디자이너를 맡은 존 갈리아노(John Galiano)의 Fall 2020 ready-to-wear 컬렉션으로 업사이클 라인 ‘레시클라’를 런칭하여 선보였다. 레시클라는 기존의 빈티지 제품을 해체, 분해하고 현대적으로 재조합하여, 과거와 현대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준다(Ajie, 2020). 마르지엘라 업사이클 패션에서 보이는 해체와 재구성은 브랜드 로고 23가지의 라인 중 ‘⑩’라인의 설명처럼(Figure 12), 기존 의복의 형태를 부수고 과거 고정적인 기능을 부정하며 개조하여(remodelled) 현재에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 해체주의 디자인 조형을 보여준다.

이처럼, 업사이클 해체주의의 디자인은 과거의 것을 현재에 다시 재구성하여 하나의 패션 룩(look)안에 연속적, 순환하는 중첩된 시간관을 가지고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사이클

해체주의의 특징을 ‘역사성’이라고 정리하였으며, 업사이클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의 조형 특징과 방법, 의미를 기호학적 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4. 패션과 기호학

1) 기호학과 패션의 언어

기호학이란 19세기 후반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미국의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에 의해 창안되었다. 두 학자의 기호학에 대한 유사한 골자는 기호의 구성요소의 구조적 관계 모델에 초점을 두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이해한다고 보았다(Crow, 2003/2010). 기호학은 세상의 상정이 어떻게 의미 작용하며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문화 현상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주목하며 기호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다룬다. 이미지를 기호학의 측면에서 분석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기호학이란, 문화의 과정이자 사회적 작용성(social forces) 관점에서 기호를 연구하였다(Kim, 2018).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의복을 언어의 한 종류로 간주하고 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 공시적(synchronic, 共時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Svendsen, 2004/2013). 앨리슨 루리(Alison Lurie)는 「의복의 언어(The Language of Clothes)」에서 의복의 구성은 실제 어휘와 동등한 수준의 문법과 어휘를 가지며 발화된다고 하였다(Lurie, 1983). 이처럼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패션의 언어는 한 사회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기호로서 그 사회의 세계관, 생활방식, 개인적 의미, 동시대적 가치관 등을 함의한다(Boero, 2015).

2) 이항대립과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조형적 기호가 가지는 의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적 개념 해석에 용이한 이항대립과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을 사용하였다.

이항대립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에 의해 제안되었다. 소쉬르는 언어가 하나의 반대와 대조의 체계(a system of contrasts and opposites)라고 보았다. 즉,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관계에서 나아가 의미라는 것이 기표와 기의 사이의 일치 결과가 아니라 차이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Lee & Jeong, 2015). 이항대립은 의미 간의 관계해석을 통해서 기표와 기의의 본질적인 의미 해석과 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체주의 단계별 특징을 반영한 중심어휘의 확장된 의미해석을 위해 이항대립 구조 해석을 하

였다.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기호 사변형, carré sémiotique, semiotic Square)은 프랑스 기호학자 알기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가 1966년 그의 저서 「의미에 관하여: 기호학적 시론(Les jeux des contractores 'sémiotique')」에서 제안한 기호 간의 관계를 구조주의적 분석을 하기 위해 고안된 사각형의 틀이다. 기호 사각형 틀은 반대(opposite relations), 모순(inconsistent relations), 함의적 관계(implicative relations)의 비교 안에서 궁극적으로 <Figure 13>에 'S1'의 복합적인 의미를 도출한다(Corso, 2014). <Figure 13>은 '진리검증 사변형'이라고도 불리며 요소 간의 맥락적 관계 구조를 파악하여 정념(sentiment) 즉, 주체에 의해 획득, 상실, 지연된 가치를 분석할 수 있다(Cho & Lee, 2016).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문화 예술 분야의 의미를 가시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특히, 패션디자인을 하나의 의미작용 체제인 기호로 보고 그 조형적 의미해석과 사회문화적 함의를 해석할 수 있다(Huh, 2002; Lee et al., 2013; Paik & Lee, 2017).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진화한 현대 해체주의 패션의 핵심 개념을 기호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 분석 틀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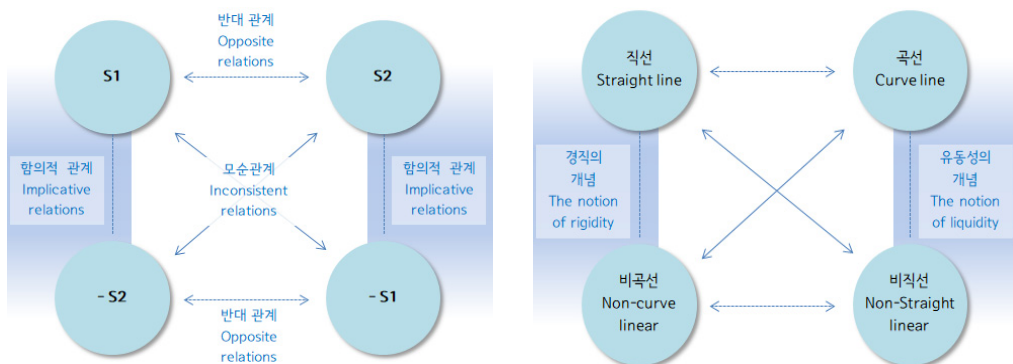


Figure 13.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 의미생성 구조와 사례.

III.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 의미 분석

1. 해체주의의 이항 대립적 의미도출과 동위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단계별 변화에 따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핵심어를 중심으로 발생 배경 및 디자인 특징을 <Table 1>과 같이 분류하고, 이항대립과 동위성 분석을 이용하여 시대별 해체주의 디자인에 나타난 의미를 확장하며 해석하였다. 동위성 분석은 의미의 단위인 의소(seme)들을 가시적인 기호 사각형으로 표현하며, 동위성 의미 간의 확장을 통한 의미생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Lee et al, 2013). 이를 통해 요소 간의 이항적 관계를 파악하고 상대적인 존재와의 비교하며 본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초기 해체주의의 특징인 ‘차연’으로 핵심어를 정리하였다(Figure 14). 현전하는 것의 의미에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발생한 해체주의는 다른 요소 간의 차이, 자연이 나타나며, 단일하고 단편적인 하나의 존재가 아닌 두 가지 요소 간의 양립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하나의 단편적이고 규정된 패션 이미지를 벗어나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새로운 패션 이미지를 제안하고 있다. 상반된 요소 간의 상충적이며 상호 비교적인 관계는 각 요소가 서로를 강조하며 존재하고 있다. 동위성 분석으로 살펴본 이와 상반된 개념으로는 두 요소 간의 차이가 없으며 변화와 유보 없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관계로 단편적인 하나의 패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수와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의 향상으로 변화한 신해체주의는 ‘탈경계’로 분석하였다. 탈경계는 경계가 모호하며 상반된 디자인 스타일

Table 1. 해체주의 디자인의 단계별 발생 배경 및 디자인 특징.

	해체주의	신해체주의	업사이클 해체주의
발생 배경	- 현전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	- 소수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포용력 커짐	-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패션의 관심 증가
중심어	차연	탈경계	역사성
디자인 특징	- 과거와 현재, 남성성과 여성성, 귀족주의와 하위문화, 전통과 현대 등 서로 다른 요소의 차이와 거리가 공존	-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특별함과 일상, 남녀의 젠더 표현 등 상반된 요소간의 경계가 없고 모호함 - 일상적 요소를 하이패션에 배치하여 낮은 느낌을 줌	- 과거에 생산된 옷이나 남은 원단을 재구성, 재생산하여 재료가 가진 역사성에 현재의 디자인 감성과 가치를 결합
예시	 <p>Figure 4. Vivienne Westwood 1988. From THE PAGAN YEARS, 1988-1992. (n.d.). https://blog.viviennewestwood.com</p>	 <p>Figure 7. Vetements 2018. From Mower. (2017). https://www.vogue.com</p>	 <p>Figure 11. Martin Margiela 2020. From Mower. (2020). https://www.vogue.com</p>

$$\frac{\text{차연}}{\text{일치}} = \frac{\text{차이}}{\text{동일}} = \frac{\text{연기}}{\text{정해진}} = \frac{\text{지연}}{\text{동시}} = \frac{\text{유보}}{\text{보존}} = \frac{\text{변화}}{\text{유지}}$$

Figure 14. 차연의 동위성 분석.

$$\frac{\text{탈경계}}{\text{경계}} = \frac{\text{모호}}{\text{분명}} = \frac{\text{섞임}}{\text{분간}} = \frac{\text{합성}}{\text{구분}} = \frac{\text{복합적}}{\text{구별}} = \frac{\text{종합적}}{\text{분리}}$$

Figure 15. 탈경계의 동위성 분석.

$$\frac{\text{역사성}}{\text{일시적}} = \frac{\text{지속}}{\text{간헐}} = \frac{\text{연속}}{\text{단편적}} = \frac{\text{연결}}{\text{단절}} = \frac{\text{공존}}{\text{분절}} = \frac{\text{공재共存 (함께 존재)}}{\text{분리}}$$

Figure 16. 업사이클의 동위성 분석.

이 섞이고 합성되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경계는 단일한 패션 스타일의 표현이 분명하며 다른 스타일과 구분, 분리가 명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리하였다 (Figure 15).

마지막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등장한 업사이클 해체주의의 중심어인 ‘역사성’으로 동위성 분석을 하였다(Figure 16). 역사성은 기존에 이미 생산된 옷이나 남은 원단을 활용하여 현재의 동시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원재료가 가지는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성은 지속가능하고 연속적이며 과거의 재료가 가진 스토리 혹은 기억과 현재가 연결되고 공존, 공재한다고 동위성을 정리하였다. 역사성의 반대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속하지 않고 간헐적이며 단편적이고 시간이 연결되지 않고 단절, 분리된다고 해석하였다.

2. 그레마스 사각형 의미생성 분석

동위성 분석과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 의미생성 분석을 통해 알아본 해체주의의 단계별 조형 특징과 디자인 방법, 사회문화적 의미의 종합적 해석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첫째,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차연의 미학은 하나의 단편적이고 규정된 패션 이미지가 아닌 상반된

요소의 디자인 이미지 혹은 요소가 서로 다른 차이의 상충적이며 상호 비교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연의 미학이 담긴 디자인의 예로는 남성과 여성, 귀족주의와 하위문화 전통과 현대 등 서로 다른 이질적 요소의 차이와 거리가 하나의 룩으로 공존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드러나는 디자인 의미는 포스트모던 기반으로 단일하고 명확한 일관된 룩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질적인 것의 공존을 통해 대상에 대한 반전과 환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Figure 17).

둘째, 신해체주의 패션에 나타난 탈경계 양상은 이질적인 요소를 함께 배치하여 섞고 합성하여 이전과는 다른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룩을 제안하였다. 이전에 분명한 경계와 대상을 규정화하여 전개하였던 단일한 패션 스타일과는 다르게 신해체주의의 탈경계적 패션디자인은 상충하는 스타일 간의 경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고 불확정적인 대상으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베트밍의 컬렉션에서처럼 럭셔리 패션과 하위 스트리트 패션 간의 경계가 규정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새로운 룩을 제안한다. 이를 통한 신해체주의 패션 디자인의 의미는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확대를 보여주며, 패션 룩이 고정적인 대상의 전유물이 아니라, 패션 전파자와 수용자의 수평적 관계임을

Table 2. 단계별 해체주의 디자인 방법과 의미.

	해체주의	신해체주의	업사이클 해체주의
중심어	차연	탈경계	역사성
디자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되고 차이가 명확한 디자인 이미지 혹은 요소가 서로 상충적이며 상호 비교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인 요소를 재조합, 합성하여 다른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룩을 만들 - 표현에 있어서 모호하여 경계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제한적 조건 안에서 디자인 전개 - 대량생산이 아닌 수공예적인 표현 - 재료가 가진 역사성과 현재의 디자인 감성이 결합
내재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모던 기반 단일 룩에 대한 절대성과 확실성을 부정 - 상충적인 관계 속에서 고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 - 이질적인 것이 공존하며 새로운 반전, 환기의 의미 - 다양성의 표현을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에 대한 관용 확대 - 패션 룩이 고정적인 대상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상자를 열어두어 규정되지 않는 대상의 형상화 - 패션 전파자와 수용자의 수평적 관계를 표현. - 디자인 표현에 있어 유연성, 확장성, 가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새롭게 통합 - 한정적인 재료를 사용 희소성 -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시간관을 표현 - 소모적, 일방향적 패션 시스템에 대한 저항 의식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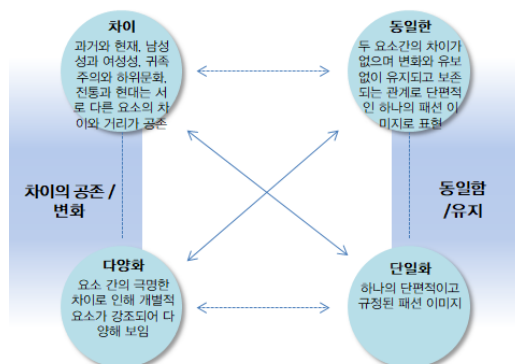


Figure 17. 차연의 의미생성 분석.

의미하고 있다. 또한, 패션의 유연성, 확장성, 불확정성을 통해 규정지어지지 않는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되었다(Figure 18).

셋째, 기존의 패션디자인이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소재, 색상, 실루엣 등의 디자인 요소가 콘셉트와 필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구성된다면, 업사이클 해체주의에서 나타나는 역사성은 재료의 제한적 조건 안에서 디자인이 전개된다. 즉, 기존의 재료가 가진 역사성과 현재의 디자인 감성이 단편적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결합한다.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새롭게 합침으로써 연속적이고 다층적인 역사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디자인 방법에 디자이너의 수공예

적인 기법을 통해 희소성을 지니게 된다. 이를 통한 업사이클 해체주의 패션의 의미적 해석은, 대량으로 생산하고 쇠퇴하는 패션 트렌드의 단편적인 흐름과 다른 연속적이고 중복된 시간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존과 공생을 통해 생산과 소멸로 이어지는 일방향적인 기존 패션 시스템에 대한 저항 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Figure 19).

IV. 결 론

패션은 사회의 언어로서 조형적 표현이라는 기표와 사회 문화, 가치관, 시대정신 등의 기의를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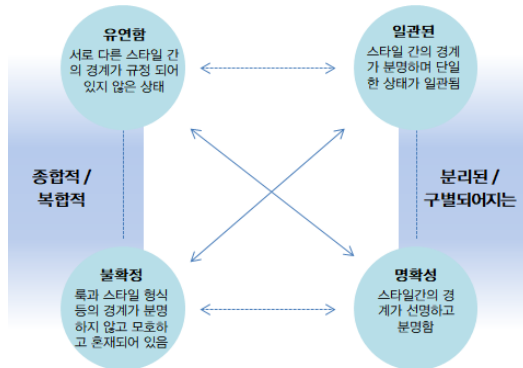


Figure 18. 탈경계의 의미생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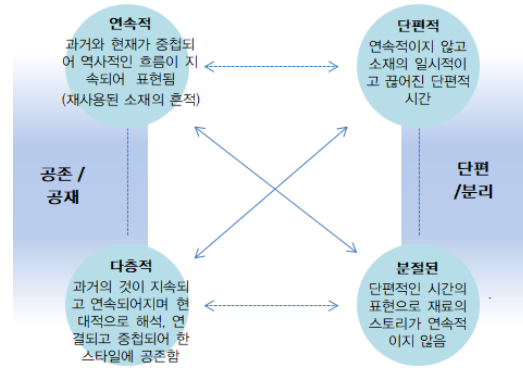


Figure 19. 역사성의 의미생성 분석.

아내고 있다. 패션이라는 기호의 해석은 과거와 현시대의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60년대 기술과 문화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태동한 해체주의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며, 사회 문화 예술의 다양한 영역에서 해석되고 연구되어 왔다. 국내의 해체주의에 관한 연구는 현대 해체주의의 변화와 조형적 특징에 관한 내용이 많았지만, 기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체주의의 시대적 가치관에 따른 조형적 변화와 그에 내포한 사회 문화의 심층적 의미 해석을 반영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었던 해체주의 연구에서 나아가 기호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흐름

을 반영하여 조형적 표현이 내포한 시대적 함의를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체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와 대표적인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분석을 기반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를 시대적 흐름과 특징에 따라 3단계 차연, 탈경계, 역사성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각 대표적인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베트멍, 메종 마르시엘라의 컬렉션 분석을 통해 각 단계의 조형적 특징을 이항 대립적 의미 분석과 동위성 분석 후,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이용하여 각 시기 단계별 해체주의의 심층적인 의미생성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해체주의의 변화에 따른 핵심 개념은 차연, 탈경계, 역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

며, 각각의 개념이 패션디자인 영역에서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차연은 단일한 룩에 대한 절대성을 부정하고자 이질적인 패션디자인 이미지와 요소가 하나의 룩에 공존하며 서로를 강조하고 그 차이를 통해 해체주의 미학을 표현하였다. 이질적인 것의 공존은 반전과 환기의 의미와 단편적이고 전형적, 고정적인 룩에 대한 부정으로 다양성의 존중을 표현하고자 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가치를 표현한다.

둘째, 탈경계는 이질적 요소 간의 공존에서 나아가 그 경계가 모호하게 배치되고 섞이며 복합적인 룩을 표현하는 것으로 패션 표현과 수용자의 해석에 있어 수평적인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탈경계의 해체주의 패션은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젠더의 구분, 일상성과 특별함 등의 전형적이고 고정적인 위치를 제안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특정 패션 이미지는 전형적인 대상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등하고 유연하며 가변성을 지니는 패션 이미지로 제안한다.

셋째, 역사성은 업사이클 해체주의가 가지는 특징으로 희소성 있는 재료의 제한적 조건 아래에서 과거와 현재의 연장과 결합으로 연속적이고 중복적인 시간을 표현한다. 이는 기존 패션 트렌드의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시간과는 반대로 순환적이고 지속적인 시간관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시간관의 업사이클 해체주의는 기존의 대량 생산 시스템의 소모적이며 일방향적인 패션 트렌드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내포한다.

60년대 태동한 해체주의는 차연, 탈경계, 업사이클 해체주의 과정을 거치며 기법적 특성이 다양해지며,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체는 기존의 법규를 깨는 전향적 개념 이상의 의미를 띄며, 동시대의 이슈와 가치관을 흡수하며 진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에 드러나는 의미 확장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이해와 함께,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와 신념을 파악하고, 그 가치가 어떻게 패션의 영역에서 흡수되고 표현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특정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해체주의적 디자인의 의미해석을 함으로써, 각 해체주의 디자인이 가지는 포괄적 의미를 제한하는 것의 부재와 이항대립적 분석을 활용해 이분적 구조로 대상을 해석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패션의 조형 해석에서 나아가 문화적 상징적 언어로서 패션이 내포한 함의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해체주의 패션디자인 이론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jje, T. (2020, March 11). MAISON MARGIELA IN RESTORING, REINVENTING, AND RECYCLING. *DEW*.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www.dewmagazine.com/maison-margiela-in-restoring-reinventing-and-recycling/>
- ANGLOMANIA 1993 - 1999. (n.d.). *Vivienne westwood*.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blog.viviennewestwood.com/history/1993-1999/>
- Bae, S. J., & Jung, K. H. (2018). *Up-cycling fashion des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Boero, M. (2015). The language of fashion in postmodern society: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Semiotica*, 2015(207), 303-325. doi:10.1515/sem-2015-0037
- Buckingham, W. (2011). *The philosophy book: Big ideas simply explained*. England: Dorling Kindersley Ltd.
- Cho, C. Y., & Lee, J. Y. (2016). *기호학과 미학* [Semiotics and aesthetics]. Seoul: Communication Books.
- Cho, H. A., & Kim, Y. I. (2019).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everydayness in hyperrealism art and fashion: Focused on Duane Hanson and Vetements. *Journal of Fashion Design*, 19(3), 55-72. doi:10.18652/2019.19.3.4
- Choi, S. W. (2015). A study on implications inherent in deconstruction design at an analytical level. *Journal of Digital Design*, 15(3), 83-93. doi:10.17280/jdd.2015.15.3.009
- Choo, T. G., & Seo, K. H. (2005). A study on intertextuality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ocus on 1999-2005 Paris collection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7(4), 361-370.

- Corso, J. J. (2014). What Does Greimas's Semiotic Square Really Do?. *Mosaic: An Interdisciplinary Critical Journal*, 47(1), 69-89. doi:10.1353/mos.2014.0006
- Crow, D. (2010). *Visible signs: an introduction to semiotics in the visual arts* (Park, Y. O., Trans.). Seoul: AHN GRAPHICS.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Eun, Y. J., & Kim, S. H. (2002). Deconstruction fashion in the artworks of Vivienne Westwood. *Journal of Living Science Research*, 28(-), 99-110.
- Fall 2012 COUTURE Maison Margiela (n.d.). *Vogue*.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couture/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14>
- Gill, A. (1998). Deconstruction fashion: The making of unfinished, decomposing and re-assembled clothes. *Fashion Theory*, 2(1), 25-49. doi:10.2752/136270498779754489
- Huh, J. S. (2002). An analysis of fashion image by plastic semiotic approach: a comparative analysis <Arizona> of Issey Miyake with <Mondrian Look> of Yves Saint Laurent. *Journal of Fashion Design*, 3(1), 105-123.
- Jiang, B. C., & Seo, G. Y. R (2014). A study on make-up design of Vivienne Westwood's deconstruction fashion.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8(3), 119-126.
- Kim, G. L. (2005). *A study on fashion design of Vivienne Westwood: Focusing on the period since 198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E. (2018).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logan fashion utilising Roland Barthes' semiotics: Focused on slogan fashion in 2017 S/S, F/W Collections. *Journal of Fashion Design*, 18(1), 19-36. doi:10.18652/2018.18.1.2
- Kim, H. J., & Lim, Y. J. (1998).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modern architectural form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al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40(-), 137-149.
- Kim, J. Y., & Chun, H. J. (1997). A study of modes of deconstruction in clothing: Comparison of clothing with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2(-), 293-312.
- Kim, M. H. (2019). A study on the neo-deconstruction design in Loewe.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2(4), 14-24. doi:10.35280/KOTPM.2019.22.4.2
- Kim, S. E., & Ha, J. S. (2016). A study on aesthetic values of neo-deconstructive fashion: Focused on Vetements, Marques'Almeida, Jacquemus. *Journal of Fashion Design*, 16(4), 129-150. doi:10.18652/2016.16.4.8
- Kim, S. H., & Kim, Y. (2017).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positive deconstruction fashion: Focused on the collections since the 2014. *Journal of Fashion Design*, 17(4), 67-85. doi:10.18652/2017.17.4.5
- Kim, S. J. (2016). Characteristics of Martin Margiela's fashion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ambiguity.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18(2), 191-206.
- Kim, S. Y. (2016). An analysis of Vetements fashion collections and its internal meaning: Focusing on fashion collections from 2014 F/W to 2016 F/W.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Design Culture*, 22(3), 67-80.
- Lee, J. H., Kim, J. E., & Ryu, L. J. (2013). A study on the generative structure of the meaning and the binary-opposition in the convergence of fashion design and technology as a emotional method: Focused on fashion design col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7), 134-147. doi:10.7233/jksc.2013.63.7.134
- Lee, M. J. (2019). *Study on the Fashion Design by Neo-Deconstructivism: Based on Paulo Coelho's novel 'eleven minu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 Lee, S. R., & Jeong, E. J. (2015). The knowledge and power expressed in the movie <The Name of the Rose>: Focused on the structure of "binary opposition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8), 194-208. doi:10.5392/JKCA.2015.15.08.194
- Lurie, A. (1983). *The language of clothes*. New York: Vintage.
- Maison Martin Margiela Artisanal Collection Hits Yoox.com. (2009, December 1). *Sicka than average*.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sickathnaverage.typepad.com/sta/2009/12/maison-martin-margiela-artisanal-collection-hits-yooxcom.html>
- Martin Margiela, Designer of Intelligent Fashion. (n.d.). *A.G.NAUTA COUTURE*.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agnautacouture.com/2015/07/05/martin-margiela-designer-of-intelligent-fashion/>
- Mower, S. (2015, October 2). Vetements SPRING 2016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etements>
- Mower, S. (2016, July 4). Vetements SPRING 2017 MENS WEAR. *Vogue*.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menswear/vetements>
- Mower, S. (2017, June 24). Vetements SPRING 2018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ready-to-wear/vetements>
- Mower, S. (2020, February 27). Maison Margiela FALL 2020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
- Oh, Y. J., Yoon, J. A., & Lee, Y. H. (2016). Expression method and technique of upcycling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7), 109-123.
- Paik, H. Y., & Lee, J. H. (2017). A study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in contemporary fashion subculture using the Greimas semiotic squ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7(8), 80-99. doi:10.7233/jksc.2017.67.8.080

- Park, I. Y., Chang, B. Y., Cho, H. G., & Kim, J. Y. (2017). Design analysis of the upcycle fashion brand “RE;CODE”. *Journal of Human Ecology*, 21(2), 85-100.
- Phelps, N. (2015, March 5). Vetements Fall 2015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vetements>
- Shon, Y. M., & Yi, S. H. (2004).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applying pleats method: Focusing on the deconstructio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6), 153-168.
- Svendsen, L. (2013). *Fashion: a philosophy* (Do, S. Y., Trans.). Seoul: Mid.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THE EARLY YEARS 1981-1987. (n.d.). *vivienne westwood*.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blog.viviennewestwood.com/the-story-so-far>
- THE PAGAN YEARS 1988-1992. (n.d.). *vivienne westwood*.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blog.viviennewestwood.com/history/1988-1992/>
- Viviennewestwood.com. (n.d.). *Vivienne westwood*. Retrieved August 6, 2020 From <https://blog.viviennewestwood.com/>
- Youn, Y. S. (2016). Representationalism, dialectic, historicity: A critique of the representationalism on the basis of Hegel’s concept of experience.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61(-), 217-244. doi:10.15750/chss..61.201608.008
- Yun, J. Y. (2009). An iconological analysis of the fashion works of Vivienne Westwo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1), 60-76.

Semantic Analysis on Change of Deconstructive Fashion Design from a Semiotic Perspective

Shin, Mira • Lee, Jee Hyun⁺

Doctoral cours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nduct semantic analysis on deconstructive fashion design changing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values from a semiotic perspective. As for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were used. Accordingly, the types of deconstructed designs were classified as ‘differance’, ‘de-boundary’ and ‘upcycle’. Using isotopy and Greimas’ semiotic square frames, we analyze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and connotations of fashion design in the collection of leading designers such as Vivian Westwood, Vetements, and Maison Margiela. The major results of our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differance’, an expression of early deconstructive fashion that we looked at in the late 90s through Vivian Westwood, was expressed as diversity based on postmodernism in conflicting fashion style differences and expanding the perception of the object in denial of a single thing. Second, ‘de-boundary’ proposed a horizontal and equal relationship to fashion leader and adopters in a SNS environment where minority opinions are respected. Furthermore, the fashion design expression was found to be flexible and expandable, and variable features were expandable. Third, upcycle deconstruction developed with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awareness was found to be characterized by the scarcity and limited use of materials and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materials. It was also found to express a complex fashion system, continuously connected with current design sensibiliti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ontribute to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ends of deconstructive fashion design by subdividing the flow of deconstructionism in modern fashion and by analyzing and presenting inherent meanings from a semiotic perspective.

Key words : deconstructivism, differance, up-cycle, Greimas semiotic square, binary opposition

